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칭다오이공대학교 칭다오대학	기숙사비	5400 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칭다오 (청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4개월 (9월 3일 ~ 12월 31일)	기타비용	983위안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01 . 04.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야, 말하기, 듣기, 작문 수업이 있습니다. 보야는 주 4일 매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단어부터 시작해 문법, 본문 기초를 다지는 수업입니다. 말하기는 주 3일 월, 수, 금 마찬가지로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말하기 수업이다 보니 발표 수업도 있으며 조별로 팀을 꾸려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듣기 수업은 주 2일 화, 목 마찬가지로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단어를 기초로 듣기 파일과 함께 듣기 연습을 매번 하며 hsk 4급, 5급 듣기 연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언 듣기를 통해 듣기 능력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작문은 주 1일 수요일에만 수업을 하며 보야 선생님과 동일한 교수이다. 작문은 단어보다 어법 위주로 작문을 할 때 쓰이는 용법들을 배우며 매번 새 주제를 가지고 작문을 해오는 과제를 하며 피드백을 통해 어떤 부분에 용법을 제대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솔직히 위치로 따지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시골이었고, 시내로 나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으며 은행이 주변에 위치하지 않아서 돈을 넣기 위해 은행을 가는데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치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버스가 자주 왔기 때문에 교통 상으로는 문제 없었으며, 기후 역시 한국과 비슷하며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주변 편의 시설은 편의점은 없었으나 마트와 노점상들이 많아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문 뿐만 아니라 후문에도 상점들이 꽤 있어서 주변 편의시설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5400위안/한 학기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전기장판, 커피포트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금지 기숙사 내에서 음주 및 흡연 금지		
주요사항	온수기, 에어컨 동시 사용 금지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2인 1실에서 생활 했으며 책상과 인자가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 공부하기에 편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대신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분류해서 쓰면 되고, 옷장이 부족하면 책장에도 수납공간이 많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온수기, 에어컨, 라디에이터 등의 시설이 있으나 온수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면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헬스장은 한 학기 550위안, 한 달 200위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근육위주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구들과 2층에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 줄넘기, 아령, 심지어 클라이밍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위치한 세탁소로 도서관 가는 길에 있으며 옆에 마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유학생 기숙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물세탁만 하면 7위안이고 건조까지 하면 10위안을 냅니다. 빨래통에 빨래를 담고 결제를 한 뒤 세탁소 이동가 찾으러 오라고 한 시간에 가지러 오면 됩니다.



유학생 기숙사 1층에 위치한 카페로 주로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음료 가격은 인민폐 20위안 정도 합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한 달 어학연수로 갔던 천진 이후 오랜만에 가는 중국이라 많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과 달리 이번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타국에 있어야 한다는 게 걱정에 앞섰는데 칭다오는 생각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음식이 많이 안 맞는 타입이라서 먹는 거에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칭다오는 한식도 많고 한국인들에 맞는 음식들이 꽤 많아서 걱정과 달리 잘 먹고 다녔습니다.

수업도 분반고사를 통해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서 어렵지 않았으며, 다만 한국인이 많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칭다오에서 아쉬웠던 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인들과 만날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게 많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동아리는 엄청 많았는데 제약 조건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많이 알아봤는데 친구 소개로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만난 중국인 친구랑 친해져서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 중국에 가장 놀랬던 것은 바로 위챗페이와 간편한 결제 및 보편화였습니다. 한국은 늘 지갑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기 일수였는데 중국은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고, qr코드만 있으면 결제가 다 되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하면서 또 좋은 점은 중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다 상해, 시안 등으로 여행을 가보았습니다. 같은 나라 중국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와 환경, 습관 모든 게 다르다는 걸 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곳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값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해에서 칭다오로 오는 길에 만난 중국 사람과 우연치 않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내 중국어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길도 많이 알려주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고 정말 남남인데 이렇게 서슴없이 도와준다는 게 참 신기했고 중국인에 대한 이전의 인식들이 많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알게 된 중국인들이 준 선물들과 인사를 받으면서 어디든 정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한 달 어학연수로 갔다왔던 천진을 다녀왔을 때는 다시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칭다오를 다녀와서는 중국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더 많은 중국을 즐겨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도 중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취업을 생각해볼 정도로 중국에 대한 기존 인식이 크게 변화해서 교환학생 생활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